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. 4. 9.(목)

법무부, ‘이주 노동자 에어건 인권 침해 사건’ 피해자 방문 및 범죄 피해 통합지원 실시

- 법무부 ‘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’, 검찰·경찰, 변호사 등 합동 방문 -

- 법률·심리 상담 등 피해자 맞춤형 통합 지원 예정 -

법무부(장관 정성호)는 최근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‘**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**’과 관련하여, 어제(4.8.) 오후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하여 **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**하였으며, 향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**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 제공**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이 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하여 상담사, 검찰, 경찰, 범죄피해자지원센터, 법률홈닥터 변호사 등은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피해자의 건강 상태 및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, 피해자에게 **형사사건 진행 절차 및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였으며, 법률구조공단·법률홈닥터 법률지원, 중상해 피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, 스마일센터 심리지원, 통번역 지원 등 가능한 지원에 대하여 안내**하였다.

※ **‘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’ :** 검찰, 경찰, 범죄피해자지원센터,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 **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기구**

피해자는 이 날 심리 상담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에서는 향후 피해자와 긴밀히 연락하여 **태국어 상담사 또는 3자 통역을 통한 심리상담과 법률구조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.**

정성호 법무부장관은 “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물론, **관계기관·단체와 협의하여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**으로 할 것이며, 아울러 **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면밀히 보완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법무부 인권정책과	책임자	과 장	노일석 (02-2110-3673)
		담당자	사무관	신민철 (02-2110-3649)
	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	책임자	센터장	하용준 (02-811-5200)
		담당자	사무관	여유진 (02-811-520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